

**통산부,
'신 경제 산업전략' 발표**

통산산업부는 5월 17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항공기산업이 200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1%로 세계 10대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심의회에서 제시한 '2000년대 한국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96~2005)'에 따르면 항공기산업을 비롯한 첨단전자정보산업, 생물산업 등 자본집약적이거나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들 수 있다.

항공기산업은 '93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0.2%로 세계 15위에서 2005년 시장점유율 2.1%의 세계 10대 국가로 도약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34.5%의 고도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생산량은 '96~2000년 연평균증가율 19.9%에서 2000~2005년 33.1%의 고도 성장전망이 주목된다. 이러한 항공기산업의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은 첨단산업 전체 평균보다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한국산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함과 더불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경쟁 촉진, 기술력 및

글로벌화, 중소기업 자생력 확립, 지방산업 발전을 과제로 삼아 중점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산부 미 방문,
BASA협정체결 추진위해**

통산산업부는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통산부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 FAA측과 사전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동 회의시 한·미 간의 BASA협정 체결 배경과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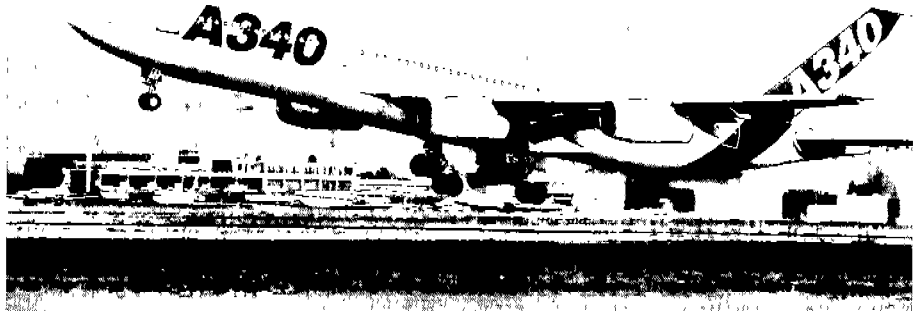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 5월 10일 통산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항공기 및 동 부품 수출협정체결 추진 실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우리측 입장정리와 FAA측의 예상 질문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과의 BASA협정은 100인승 중형항공기에 대한 미국 인증획득과 TSO품목 생산에 대한 승인, 보잉 및 맥도넬더글라스사 등에 공급하는 항공기 부품의 생산승인을 위해 '95년 9월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96년 1월에 BAA체결추진을 위한 공식 외교 Note를 발송하여 미국측과 사전실무회의 개최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검사수입 추가
항공기 중앙동체부분에**

국립품질기술원은 지난해에 대한항공을 항공우주산업 검사수입업체로 지정하는데 이어 지난 5월 28일 검사대상을 추가지정하였다.

검사수입업체의 지정은 검사실적이 우수하고 자체검사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제외한 생산품 일부의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항공우주산업 검사수입업체 지정요령



대한항공은 A330/A340의 동체부분은 추가로 자체 검사수입 승인을 받았다(사진은 A340의모습)

(91년 12월 공표)에 따라 지난해 대한항공이 최초로 검사수입업체로 지정되었으며 A330/340여객기 동체의 Section 15, Forward Upper Shell에 대한 자체검사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부분은 A330/340 여객기 동체의 Section 15, Central Upper Shell Panels 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동 부품을 자체 검사만을 통해 원제작사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UH-60헬기 관련 공급자설명회 개최

UH-60 헬기 절충교역 공급자 설명회가 지난 5월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UH-60헬기제작에 관련된 Allied Signal Aerospace사등 15개업체들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는 국내업체로는 삼성항공 등 총 34개 업체 및 기관에서 약 80명이 참석하였다.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동 설명회는 시콜스키(Sikorsky)사 소개와 금세기말에 선보일 군용기인 RAH-66과 산업용 S-92의 소개도 있었다.

참가한 미국측 업체는 다음과 같다.

Allied Signal Aerospace, McGill Manufacturing Co, Inc., Astronatics Corp. of America, Packard -Hughes interconnect, Canadian Marconi Co., Senior Flexnic Co., BF Goodrich Aerospace, Sundstrand Aerospace Power Systems, Dow-United Technologies Co., Hamilton Strand, Flightline Electronics, Lear Romec

KOMPSAT 세부제원 확정 PDR 보고회의서

다목적실용위성(KOMPSAT)인 아리랑 1호의 예비설계(PDR)보고회의가 지난 5월 22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다목적실용위성사업의 총괄기관인 항우연(소장 장근호)은 공동개발계약자인 미국의 TRW사와 그동안 진행되었던 위성개발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아리랑 1호는 고해상도와 저해상도카메라를 각각 1대, 영상데이터 송신장치, 과학탐지체를 장착하고 있으며 태양 전지판을 위성몸체에 양날개모양으로 부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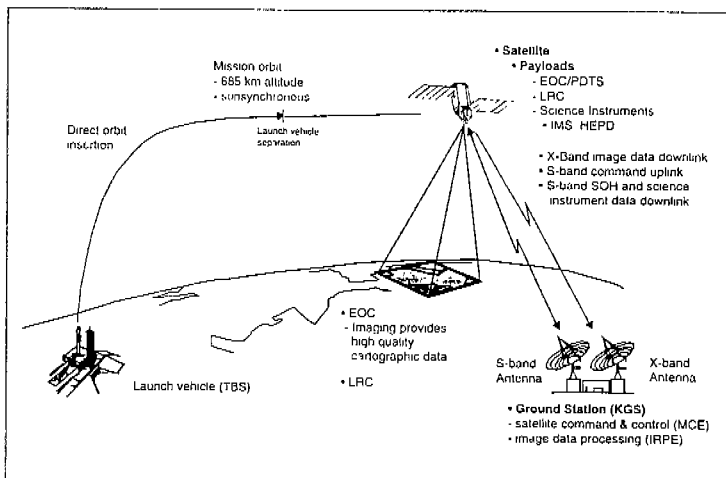
다목적실용위성사업은 지난 91년 시작되어 지난해 3월 항우연과 TRW사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 공동으로 설계작업을 진행해왔다.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KOMPSAT) 심의위원회 2차년도 연차평가가 지난 5월 16일 항공우주연구소(KARI)에서 개최되었다.

평가 대상은 본체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설계 및 개발(II)등 6개의 과제로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한리중공업, 한화, 삼성항공, KARI 등의 순서로 2차년도 결과 및 3차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관기관 자체 예비평가자료 및 총괄주관기관 예비평가자료 검토와 관련 평가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심의위원 평가표 등을 작성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시스템 개념도